

# 「東國李相國集」을 통해 본 이규보의 建築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Lee Gyu-Bo's Viewpoint on Architecture through 「Dongkukyisangkukjib」

김경희\*                      김미나\*\*  
Kim, Kyung-Hee              Kim, Mi-N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crutinize forefathers' standpoint on architectural planning by peering into their literature. Dongkukyisangkukjib which contains works about daily life of Lee Gyu-Bo, a great writer in the middle of Koryo, reveals well people of Koryo' thought on architecture, if we have a interest in a building space. The book holds his general viewpoint on architecture and documents about the remarkable houses he and his friends visited. Then we can know, through it, general thought on architecture of the upper classes in those days. Lee Gyu-Bo considered a house the other self of its owner and connected buildings with personality of their owner. In architectural process and architectural planning, buildings were shown variously by reflecting owner's value on architecture. Unlike Chosun era, people of Koryo prefer unlimited thinking to form or order. Therefore in construction especially such as a pavilion, there were many experimental tries which reflected owners' thought. Particularly we could estimate people of Koryo' conception of architectural design through a work of Lee Gyu-Bo, Saryunjungky, a document about a pavilion carrying four wheels, which describes concretely contents of architectural planning such as a planning of space, module, and intention.

Keywords : Koryo, Jungja, Lee Gyu-Bo, Dongkukyisangkukjib

주요어 : 고려시대, 정자, 이규보, 동국이상국집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이규보(1168~1241)가 살던 시대는 무인정권기로서 중앙에서는 무인권력자 간 권력쟁탈과 각종 변란이 끊임 없이 일어났고, 지방에서는 농민항쟁이 일어났다. 또한 그의 말년에는 몽고가 고려를 침입하였다. 고려정부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고, 그에 따라 치열한 대몽항쟁이 일어났다.<sup>1)</sup>

이규보는 이와 같이 고려왕조가 대내외의 모순이 첨예화되었던 시기에 일생을 보냈는데 「東國李相國集」이라는 巨帙의 文集에 그가 체험한 시대상이 잘 정리되어 있다. 그 동안 이 문집은 주로 한문학 연구자들에게 문학사의 소재로 크게 활용되어 왔으며,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문집의 내용 중에는 이규보가 자신의 건축에 대한 일상적인 생각과 여러 호인들을 만나고 좋은 집들을 보러 다닌 기록들이 記와 잡서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은 몇 개의 불사건축을 제외하고는 현존하는 고려시대의 건축물이 全無한 실정에서 고려시대의 건축을 밝혀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려시대 대문호인 이규보의 「東國李相國集」에 기록된 記와 雜서 등에서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을 추출하고 분석하여 고려시대의 건축문화와 그 시대 지식인의 건축관을 정리함으로써, 『東國李相國集』의 건축사료적 가치를 알리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 2. 고려시대 건축에 대한 선행연구

조선시대를 제외하고, 그 이전시대의 현존하는 유구가 稀少한 가운데, 한국건축사에 있어서도 조선시대 이전시대에 대한 연구성과는 미비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이 가운데 고려시대 건축에 대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박언근의 「고려시대 건축의 부재단위 치수와 구조계획에 관한 연구」<sup>2)</sup>에서는 현존하는 고려시대의 건축물인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과 조사당, 수덕사 대웅전, 강릉 객사문 등 5개 건축물과 몇몇 寺址를 대상으로 하여 용적과 부재의 分數, 작법, 그리고 지붕의 가구 등의 구조적인 해석을 하였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유성룡의 「고려시대 臺工의 結構방식에 관한 연구」에서는 고려시대 건축유구 8개를 대상으로 대공결구방식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정희원, 부산정보대학 건축디자인과 교수, 공학박사  
\*\*정희원, IS디자인 대표, 공학박사

1) <http://100.naver.com/100.php?mode=all&id=12936> 참조

2)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 2호 통권34호, 1991.4 pp.121~131.

다음으로 김도경의 「고려시대 觀經變相圖의 殿閣圖에 관한 연구」<sup>3)</sup>에서는 현존하는 완전한 목조건축유구의 한 계로 고려시대의 불화를 대상으로 하여 그 속에 그려진 건축도를 분석하여 이를 간접사료로 삼고자 하였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윤희상의 「신라말·고려초기의 건축사료에 의한 건축요소 연구」<sup>4)</sup>에서는 불화나 공예품 등 미술사료와 석탑과 부도 등의 석조유구에서 그 시대의 건축요소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재수의 「AD10세기 고려시대 건축사의 시대적 특성에 관한 연구」<sup>5)</sup>에서 高麗史와 高麗史節要를 대상으로 한 문헌고찰을 통해 연도별 영조활동 분포도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분포도상의 영조활동의 증감을 시대적 특성과 결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정국의 「고려시대 起居樣式에 관한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유구 조사를 병행하여 고려시대에 좌식이 일반적인 기거양식을 파악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고려시대 건축에 대한 연구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접근하고 있다.

첫째, 유구를 직접 실측하는 방법

둘째, 건축이외의 미술사료를 연구하는 방법

셋째, 문헌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건축 유구는 그 수가 매우 적으며 모두 불사건축이어서 고려시대 건축의 다양한 면모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불사건축 이외의 건축에 대한 연구는 간접사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간접사료 역시 그다지 풍부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조선시대 이전에 대한 건축에 대해서는 미지의 부분으로 남겨져 있다.

이러한 실정 가운데 「동국이상국집」은 이규보의 묘사적 서술방법으로 고려시대의 건축모습을 구상화시킬 수 있는 좋은 사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히 서술부분이 구체적인 주택과 정자건축을 중심으로 고려시대의 건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고려시대 주택과 정자건축에 대한 연구는 불사건축과 달리 고려인들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기능의 건축을 연구하여 고려인들의 주거생활의 단편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II. 이규보와 「東國李相國集」

### 1. 이규보

본관 黃驪이고, 자는 春卿, 호는 白雲居士이다. 문순공은 고려 무신집권기에 활약한 민족의 대문호이다. 12~13세기 거란, 여진, 몽고 등 북방민족의 계속된 침략과 무신란 등 나라 안팎에 몰아치는 민족의 수난기 속에서 그

저항정신을 문학의 精華로 펼치며, 역사와 현실을 자각한 시인이자 독창적인 詩이론가로서, 민족대서사시 “동명왕편” 등 민족문학사에 크나큰 업적을 남겼다.

호탕 활달한 詩風은 당대를 풍미했으며, 특히 벼슬에 임명될 때마다 그 감상을 읊은 즉흥시는 유명하다. 몽골군의 침입을 陳情表로써 격퇴한 명문장가였다. 시·술·거문고를 즐겨 삼혹호선생이라 자칭했다.<sup>6)</sup>

### 2. 「東國李相國集」

「東國李相國集」은 이규보의 시문집으로 53권 13책으로 되어 있다. 아들 함(涵)이 1241년 前集 41권을, 그 이듬해에 後集 12권을 편집하여 간행하였으며, 51년에 의종(毅宗)의 명령으로 손자 익배(益培)가 分司大藏都監에서 증보판을 간행하였다. 조선시대에도 여러 번 간행된 듯하며, 영조 때에 복각된 것이 완본으로 전하여지고 있다.

현대에도 여러 차례 간행 되었고 민족문화추진회에서는 번역본을 냈다. 전집은 시·부(賦)·전(傳)를 비롯한 각종의 문학적인 글들이 25권을 이루고, 나머지는 서(書)·장(狀)·표(表) 등 개인적인 편지 및 관원으로서 나라에 바친 글들, 교서·비답·조서 등 임금을 대신해 작성한 글들, 비명·뇌문·제축(祭祝) 등 장례나 제사, 불교행사에 쓰인 글들이 담겨 있다. 후집은 시가 더욱 압도적이어서 10권을 점하며, 서·표·잡저 등이 실려 있다.

저자가 무신란의 와중에 태어나 전국적인 민란과 몽골의 침입 등 고려사의 격동기 속에 평생을 보냈고, ‘고려 이씨 宰相의 문집’이라는 책 제목에 나타나듯이 최고위 관직에 올랐던 만큼 다양한 사유와 경험이 담겨 있다. 많은 시 중에서도 특히 서사시 「東明王篇」은 282구에 이르는 장편으로서 고구려 건국의 신화를 웅장하게 서술하였다. 작품뿐 아니라 詩論도 많이 담고 있다. 「麴先生傳」과 「淸江使者玄夫傳」은 당시 가전체문학의 대표작으로 전자는 술을 의인화하여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하고, 후자는 어부에게 사로잡힌 거북을 통하여 인간사의 흥망과 성패를 논하였다. 「舊三國史」의 존재와 내용 일부, 팔만대장경의 판각 연혁, 금속활자의 사용 사실 등 귀중한 역사사실도 많이 실려 있다.

저자의 시문은 고인을 답습하지 않고 자유분방한 기풍을 지녔다는 평가로부터 민중의 입장에서 당시의 사회상을 진실되게 반영하고 민족과 애국의 정신을 뛰어나게 노래하였다는 설명에 이르기까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받아왔다.<sup>7)</sup>

특히 「東國李相國集」 20권에서 25권에 이르는 雜書와 記의 내용 중에는 건축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어 고려시대 건축의 면모를 알 수 있어 고려시대 건축사료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3)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4호 통권78호 1995.4 pp.93~108.

4)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4권6호 통권116호, 1998.6 pp. 113~123

5)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 2호 통권34호, 1991.4 pp.163~173

6) <http://100.naver.com/100.php?where=100&id=125440> 참조

7) <http://www.tgedu.net/student/fofokuk/html/text/go1069.htm>

### III. 「東國李相國集」에 나타난 이규보의 住宅觀

「東國李相國集」중에서 이규보가 다른 이의 주택에 대해 평가한 내용과 자신의 집과 관련된 일을 기록한 글에서 그의 건축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고, 이는 이규보 개인적인 성향이기는 하나, 전반적인 고려시대 지식인의 주택관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성리학이 정착하기 전까지 고려시대의 사상적 분위기는 儒·佛·道 三教가 독자적으로 발전하면서도 서로를 어우르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무신집권기에도 이러한 경향은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규보도 역시 어느 특정 사상에 기울지 않고 여러 종교와 사상을 접하고 있었다<sup>8)</sup>.

본 연구에서는 주택과 인간, 그리고 자연의 세 가지의 관계성을 초점으로 이규보의 건축관을 고찰해보았다.

#### 1. 주택과 건축주의 현재적 관계

그는 집을 다시 짓고 나와 손님들을 맞이하여 낙성을 하고, 또 그 건축의 구조가 어떠한가를 살펴보게 하기에 나는 보고 나서, “아주 잘 지었네. 세상의 부유한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에는 대개 좋은 재목으로 대들보나 기둥을 만든다. 그래서 장중하고 호화스럽기는 하지만 속세에서 벗어난 맑고 깨끗한 맛은 없다. 그런데 공이 지은 집은 크기가 알맞아 너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으니 아주 아름답네. .....

- 朴樞府의 有嘉堂에 대한 記 中에서 -

朴樞府의 有嘉堂에 대한 記의 내용 중 좋은 재목으로 지은 장중하고 호화스러운 집보다는 속세에서 벗어난 맑고 깨끗한 집을 추구하는 은둔자적인 생각을 보이며, 크기가 알맞아 너무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으니 아름답다는 표현에서는 실용적이며 합리적인 태도도 나타난다.

그리고 이규보는 집과 사람이 一體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는 通齋記의 내용에서 알 수 있다.

..... 여러 사람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通人 양웅재라는 자가 성 북쪽에 살면서 花木을 잘 기르는데 ... 중략... 내가 이 집에 일부러 가보았더니 ..... 집의 이름을 부탁하여 <통재>라고 이름을 지었다..... 地境은 通境이 되고 싶으나 사람에게 장애를 받으면 연기가 근심하고 달이 슬퍼하므로 마침내 통경이 되지 못할 것이요, 사람은 이미 통인이 되었는데 지경에서 막히게 되면 高人, 才子가 외면하고 찾지 않을 것인데, 누가 통인이 있음을 알겠는가? 지금 이 집은 지경이 이미 통하고 있고 통인이 살고 있으니, 어찌 ‘通’으로 이름을 짓지 않겠는가? 비록 사양하고 받지 않으려 하나 어찌 이 이름을 피할 수 있겠는가?

또 천지는 내가 없는데 어찌 양생에게만 泉石과 花柳를 사사로이 주겠는가? 다만 심장이 妙에 말미암을 뿐이다.....

아, 잘 알 수는 없지만 이 집이 옛날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을 때에는 땅과 동산이 거칠고 풀과 나무가 매 말라 모든 경치가 묻혀서 나타나지 못하였다가 양생을 만난 다음에야 이름난 동리가 되었다. 가령 양생이 버려 두고 살지 않아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다면 또 어찌 돼지나 말들이 노는 땅이 되지 않겠는가? .....

- 通齋記 中에서 -

그는 집의 地境이 通境이 되었고, 사람이 通人이 되어 일체를 이루어 집의 이름을 ‘通’이라 짓지 않을 수 없다하며, 궁극적으로 집과 사람이 모두 通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다. 또한 이 집이 현재의 주인과 일체가 되었으므로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적 관점에서 건축주에게 적합한 규모와 장식성의 주택을 추구하며, 건축주와 합일을 이루는 주택이 되어야 함을 설명한다.

#### 2. 주택과 건축주의 미래적 관계

이규보가 1217년 우사간이 되었다가 부하의 무고로 인하여 정직당하고 좌사간으로 좌천되었다. 이듬해에는 집무상 과로를 범한 것으로 단정, 좌사간마저 면직당하였고, 1219년 계양(桂陽; 오늘날 부천 인천지역)의 수령으로 좌천되었다.

정우 7년 초여름에 나는 좌사간 지계고에서 계양의 수령으로 좌천되었다. 고을 사람들이 산기슭의 사이에 있는 마치 달팽이의 껍질같은 다 쓰러진 집을 태수의 거실이라고 하였다. 그 구조를 살펴보니, 휘어진 들보를 마룻대에 걸쳐놓고 억지로 집이라고 이름지었을 뿐이다. 위는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낮고 아래로는 다리를 뻗을 수 없을 정도로 좁다. 게다가 무더운 여름에는 마치 시루처럼 찌다. 처자와 종들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모두 들어가 살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먼지를 쓸고 거처하면서 당의 이름을 자오(自娛)라고 써 붙였다..... 중략 ..... 나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유사(有司)의 무고를 입어 이 유향(幽荒)하고 비습(卑濕)한 곳에 오게 되었으니, 이는 아마 하늘이 시키는 일이고 사람이 작위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집이 크고 호화로우며 거처하는 것이 화려하여 스스로 편손(貶損)된 것을 아파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늘이 나를 처우하는 뜻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더욱 화를 부르기에 알맞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의 누추한 것은, 홀로 나만이 즐거워할 바이고 여러 사람들은 매우 이맛살을 찌푸릴 것입니다.

- 桂陽의 自娛堂記 中에서 -

크고 좋은 주택에서 살다가 하루 아침에 누추한 곳으로 거하게 되자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먼지를 쓸고 당의 이름을 스스로 즐긴다는 뜻의 “自娛”를 써 붙였다. 이는 누추한 주택을 자신을 반성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道

8) 金澈雄, “이규보의 도교관”, 한국사상학회, 13권, 1999, p.84

場으로 여기고자 하였다.

도성의 동쪽에 있는 봉향리(奉香里)의 서쪽 기슭에 수십 개의 기둥에 받들려 세운 초당(草堂)이 있다. 여기가 백운거사(白雲居士)가 사는 곳이다. 그러나 몸만이 초당에 있었을 뿐 마음은 딴 곳에 두고 있었다.

그러면 거사(居士)란 누구인가? 춘경(春卿)이 스스로 붙인 호이다. 초당의 현판에 '지지(止止)'라고 하였다. 그것은 거사 자신이 이름붙인 것으로서 『주역(周易)』 현서(玄筮)의 '지지수(止止首)'라는 글귀를 따서 지은 이름이다. 지지수 즉 사람은 현(玄)으로 양(陽)이고 집은 팔(八)로서 나무이다. 거기에 이르기를 "초일(初一)에서는 그쳐야 할 때에 그치면 마음이 밝아져 허물이 없다"고 하였는데 군자는 그쳐야 할 때이면 제때에 그치는데 그것은 마치 물이 맑고 맑아 속까지 환히 비치는 것과 같이 지혜가 밝기 때문임을 이르는 말이다....

- 止止軒記 -

여기에서도 이규보는 스스로 거하는 草堂의 현판에 '止止'라고 써 붙였는데, 이는 그쳐야 할 때 그쳐서 마음을 밝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한 것이다. 그는 사람이 거하는 장소가 스스로의 마음을 갈고 닦는 장소임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앞으로 추구해야 할 미래적 관점의 이상적인 주택에 대해 말하고 있다.

### 3. 주택과 자연의 관계

이규보는 자연의 뜻에 거스리지 않으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여름의 더운 날씨와 겨울의 추운 날씨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굴과 같은 집을 지어서는 안된다고 한다.

10월 초하루 내가 외출하였다가 돌아오니 아이들이 흙을 파제끼고 움집을 만들고 있었다.

그 모양이 무덤갈기에 나는 모르는 체하고 말하기를 "왜 집에 무덤을 만드는가" 고 하니 아이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무덤이 아니라 토굴집입니다" 라고 하기에 말하기를 "왜 이런 것을 만드는가" 라고 하니 말하기를 "겨울에 꽃과 풀 오이, 마늘을 저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길쌈을 하는 어머니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추운 달이라도 따뜻하기가 봄같아서 손이 얼어터지지 않을 것이니 아주 좋은 것입니다" 고 하였다.

나는 더욱 성을 내어 말하기를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 것이 사계절의 정상적인 이치이며 그것이 거꾸로 되면 괴이한 것이 된다. 옛 성인들은 추우면 털옷을 입고 더우면 성긴 옷을 입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그런데 다시 토굴을 지어 반대로 추운 것을 더운 것으로 바꾸니 이것은 하늘의 영을 어기는 것이 된다."

사람은 뱀이나 두꺼비가 아닌데 겨울에 굴속에 있게 하는 것은 아주 상서롭지 못하다. 길쌈은 때가 있는데 하필 겨울에 하겠는가. 또 봄에는 싱싱하게 자라고 겨울에는 말라드는 것은 초목의 정상적인 성질이니 그것을 어기면 도리에 어긋난다.

또한 이렇게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조장되면 때에 맞지 않는 장난으로 되는 것이니 이것은 하늘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다.

- 壤土室說 中에서 -

이와 같은 이규보의 생각은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비합리적이며 지나치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인간이 자연을 극복하려들지 말고 순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인간과 자연 그리고 주택의 三角關係에 대한 생각이다.

## IV. 이규보의 亭子건축계획

### 1. 「東國李相國集」에 나타나는 고려시대 亭子

#### 1) 凌波亭

삼악산인(三岳山人) 종혁(宗赫)은 본래 조계(曹溪)의 풍류스러운 선비라 일찍부터 사방에 방랑하며 한문을 뜯구름에 붙인 지 오래였다. 지난 정우(貞祐) 모년에 우연히 수춘군(壽春郡)의 한 구석인 덕흥(德興)이란 곳에서 낡은 절을 얻고 그 산수가 사랑스럽다고 하여 거기 머물게 되었다. 기울어진 집을 고치고 무너진 담을 새로 쌓아서 완전한 건물을 다시 만들어 여러 승려들이 모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만일 여기 들리는 손이 있으면 또한 응접하는 예를 폐할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절간에서 함부로 떠들며 주연을 즐길 수도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사원 옆에 물결이 충충하게 고인 늪을 택하여 깊숙이 주추를 쌓은 후 그 위에 정자를 세우고 떠를 이었다. 멀리에서 바라보면 마치 말쑥하게 꾸민 배가 물결에 뜬 것 같다.

..... 아무리 절묘하게 묘사하려 해도 그렇게 훌륭한 단청을 참모습 그대로 표현해 낼 수 있을까?.....

- 赫 上人の 凌波亭記 中에서 -

凌波亭은 산수가 빼어난 곳에 고쳐지은 절간에 부속되어 있다. 절간에서 떠들며 주연을 즐길 수 없다. 절에서 조차 주연을 즐기고자 하여, 다시 고려인들이 얼마나 유희를 즐겼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정자의 형상은 늪지 속에 주추를 쌓고(植礎波底) 정자를 세웠다 하였는데, 그 모습은 <그림 1> 속의 정자와 유사하였을 것이다. 지붕을 떠를 이은 초가와 같은 형상이다. 늪지 위에 만들어진 정자를 물에 뜬 배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단청을 하여 화려한 모습이었다는 것이 특이하다.

#### 2) 桂陽 草亭

계양은 궁벽한 측대밭 사이에 있어 유람할 만한 하나의 수림도, 샘도 없는 곳이다. 남산(南山)의 비탈에 정자가 하나 있을 뿐이다. 늙은이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죽은 상국(相國) 이홍재(李洪才)가 이 고을을 맡아가고 처음에 이 자리를 잡아 돌을 쌓고 대를 세웠다. 죽은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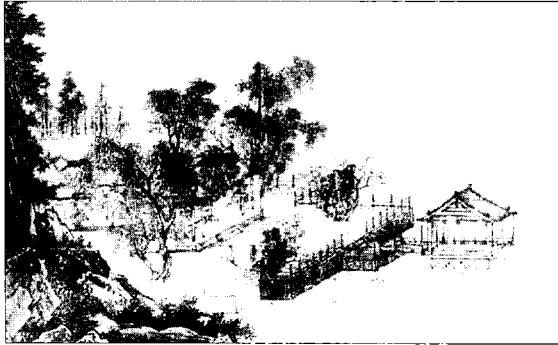


그림 1. 송대그림 <사경산수도>  
(출처, 劉敦楨, p.293)

수 이실충(李實忠)은 물을 끌어서 늪을 만들고 그 위에 정자를 지었다. 단칸에 서까래 10개를 올리고 따로 이영을 이었는데 보기도도 초라하였다. 가로 세로의 길이는 불과 여덟 자였고 여덟 사람이나 겨우 앉을 수 있어 참 말 보잘 것 없었다.

- 桂陽草亭記 中에서 -

계양에 있는 초정은 그 주변경관이 매우 삭막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남산의 비탈에 정자가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정자가 만들어진 유래를 설명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물을 끌어 들여 인공 늪지를 만들고 그 위에 정자를 지었다는 것이다. 이는 늪지위에 세웠다는 점에서 능파정과 비슷하다. 그러나 묘사에 있어서는 대조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능파정이 말쑥하게 꾸민 배와 같다면 계양의 초정은 보기에 초라하였고, 보잘 것 없다고 한다. 규모는 단칸에 가로, 세로가 8자로 8명이 겨우 앉을 수 있을 정도이고 서까래 10개에 따로 이영을 이었다는 구절로 볼 때 단칸에 초가로 된 소박한 정자였을 것이다.

### 3) 晉康侯 茅亭

뒤에는 곡령(鶴嶺)을 지고 옆에는 용수산(龍首山)을 끼고서 사방을 더위잡고 수도 한복판에 틀고 앉아 아름다운 기운을 움켜쥐고 있는 것이 바로 남산(男山)이다. 그 산록이 아름다워 천호 만호를 헤아리는 집들이 고기비늘 모양으로 즐비하게 들어앉았는데 그 가운데서 남달리 끌어당기는 듯한 형세를 이루고 빨없는 용이 일어나고 봉황새가 춤추는 듯한 집이 있는데 이것이 상국 진강후의 으리으리한 집이다. 그 잔치를 차리고 휴식을 하며 놀이를 하는 곳에 모정이 있다. 꼭대기는 뽕죽하고 몸체는 둥글게 생겼는데 바라보면 새깃으로 덮은 것 같으면서 처마가 반공으로 치들린 것이 그 정자이다.

..... 좌석에서 두루 살펴보면 앉아서도 사방을 어루만질 수 있으며 장교(長橋)가 마주 바라보이고 토성의 큰 길이 한눈에 안겨와 초헌을 타고 가는 자, 말타고 가는 자, 걸어가는 자, 달려가는 자, 지고 가는 자, 이끌고 가는 자 등 천대만상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없었다. 먼데를 관망하는 데서 이 정자만한 것이 없다.

- 晉康侯茅亭記 中에서 -

천호 만호를 헤아리는 집들이 고기비늘모양으로 즐비하게 들어앉았다고 표현되는 이 지역은 오늘날의 尙州지역으로, 도시 중심부에 산이 있고, 산자락에 진강후라는 사람의 대저택이 있다. 그리고 저택 내부에 잔치를 차리고 휴식하여 놀이를 위한 모정이 있다. 이 모정의 형상은 몸체가 둥글다는 표현에서 평면이 실제 원형이었거나 원형에 가까운 육각형이나 팔각형이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리고 지붕의 꼭대기가 뽕죽하다는 표현에서 모임지붕임을 알 수 있다.

지붕 재료는 처마가 치들렀다는 표현과 대저택 내에 부속된 것을 감안할 때 기와로 덮었을 것이다. 그러나 새깃으로 덮은 것 같다는 것은 기와가 차곡차곡 덮여진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새깃에서 느껴지는 재료는 기와의 이미지와는 사뭇다르다. 기와보다는 오히려 천연자연재료의 느낌이 강하다.

김득신이 1815년에 그린 ‘풍속도 8폭 병풍’ 중 제7폭에 해당하는 그림은 추수가 끝난 지주가의 월동준비모습이 그려져 있는데, 주인이 기거하고 있는棟의 지붕이 매우 특이하다. 전체적으로 지붕은 기와로 엮었고 처마가 들려있으나, 처마 말단부분에는 나뭇대를 엮어 놓았는데, 진강후 저택의 모정의 지붕이 이러하지 않았나 추측해본다.

그리고 좌석에서 長橋가 마주보이고, 토성의 큰 길이 보이며, 길을 지나다니는 자의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볼 때 남산에 위치한 가옥들 가운데에서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혹은 높은 樓亭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

규모는 웅장하고 화려하다고 표현하고 있어, 능파정과 같이 단청이 채색되어 있을 것이다.

### 4) 冷泉亭



그림 2. 기와지붕에 나뭇대로 처마를 단 지붕 형상, 김득신, 풍속도 8폭병풍 中7폭의 일부, 1815

운대 아감(芸臺亞監) 비서성 소감(秘書省少監) 손군(孫君)이 성북(城北)의 어느 마을에 새 집을 지었다. 큰 바위가 있어서 높이가 두어 길이나 되며, 형상은 쇠를 깎아 세운 듯이 험준하여 청사(廳事) 북쪽에서부터 동쪽 구석까지 창창하게 둘러 있다. 그 아래에 차가운 샘이 철철 흘러내려 고여서 깊은 웅덩이를 이루었는데 그 맑고 깨끗함이 실로 아찔 만하다. 청사 동쪽에 붙여서 작은 정자를 걸쳐 지었는데 10여 명의 사람이 앉을 수 있다. 맑고 깨끗함이 산재(山齋)와 같으니, 이것은 편안하게 노닐고 한가롭게 지내기 위한 곳이다. 내가 귀인(貴人)의 사는 곳을 많이 보았는데, 그들이 정원을 꾸미는 데는 반드시 굴곡이 많고 우뚝하게 패고 혹은 험난 것처럼 울퉁불퉁하고 기이하게 생긴 돌들을 가져다가, 여러 개를 쌓아서 산을 만들고 형산(衡山)과 락산(霍山)의 기이한 모습을 본뜬 것이 진실로 기묘하다.

그러나 그것은 조물주가 일찍이 개벽하여 놓은 높고 깊숙하고 기이하게 빼어난 천연의 형상만은 못하다.

- 冷泉亭記 中에서 -

손비서의 냉천정도 진강후 저택 내의 모정과 같이 주택 내에 만들어진 정자로 주변에는 쇠를 깎아세운 듯한 큰 바위가 둘러져 있다고 한다. 규모는 10여명이 앉을 수 있는 정도이고, 편안하게 노닐고 한가롭게 지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저택의 정원에 대한 설명을 살펴 보면 기이하게 생긴 돌들로 산의 형상을 본 떠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이는 흡사 중국의 대저택의 園林<sup>9)</sup><그림 3>을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형상에 대해 이규보는 인위적인 멋이 자연 그대로의 멋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며 자연적인미를 추구한다.



그림 3. 明代 園林, 乳魚亭  
(출처, 蘇州古典園林藝術, p.87)

9) 중국의 원림은 자연 풍경식으로 山水園林이라고도 하며 인공산수원과 자연산수원으로 구분된다. 인공산수원은 평지 위에 수계(水系)를 조성하고 가산(假山)을 축조하여 인공적으로 산수의 지형을 창조하는 한편 여기에 건축물과 시설물을 배치하고 수목과 화훼를 식재하여 조성된 인공의 자연환경을 말한다. (彭一剛, 중국전통원림의 분석, p.1)

## 2. 이규보의「四輪亭」의 특성

### 1) 건축취지-현실의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 여름에 손님과 함께 동산에 자리를 깔고 누워서 자기도 하고 앉아서 술을 마시기도 하며, 바둑도 두고 거문고도 타며 뜻에 맞는대로 하다가 날이 저물면 교한다. 이것이 한가한 자의 즐거움이다. 그러나 햇볕을 피하여 그늘로 옮기려면 그 자리를 바꿔야 하는 까닭에 거문고, 책, 베개, 대자리, 술병, 바둑판도 사람을 따라 이리저리 옮겨야 하므로 자칫 잘못하면 떨어뜨리는 수가 있다. 그래서 사륜정을 세우려고 하였다.

이규보가 정자를 지으려는 의도는 잠자기, 술마시기, 바둑두기, 거문고 연주, 시짓기 등의 유희를 위해서이며 이는 진강후 저택의 모정과 같다.<그림 4>에서는 정자에서 한가로이 유희를 즐기는 선비들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그리고 이규보는 햇볕이 시간에 따라 바뀔에 따라 자리를 옮길 때의 번거로움을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정자 건축계획에 임하였다고 한다.

### 2) 아이디어-움직이는 건축물의 독창성

어린 종으로 하여금 이것을 밀어 그늘진 곳으로 옮기게 하면, 사람과 바둑판, 술병, 베개, 대자리 등이 모두 정자를 따라서 함께 움직이게 되리니, 어찌 옮기는 것을 꺼리랴? 지금은 서울만한 형편이 못되나 뒤에라도 꼭 지을 결심이다....

오늘날에도 건축이란 땅위에 세워져 고정된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 고려시대에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이동이 가능한 건축물을 구상한 이규보의 아이디어의 독창성이 매우 놀랍다.

### 3) 규모 및 구조-합리적 사고

..... 바퀴를 넷으로 하고 그 위에 정자를 짓되, 정자의 사방이 6척이고 들보가 둘, 기둥이 넷이며, 대나무로 서



그림 4. 檀園圖의 부분, 김홍도, 1784

까래를 하고 대자리를 그 위에 덮는데 그것은 가벼움을 취한 것이다. 동서가 각각 난간 하나씩이요, 남북이 또한 같다. 정자가 사방이 6척이니 그 간수를 총계하면 모두가 36척이다. 그림을 그려서 시험해 보리라. 새로 가로를 계산하면 모두가 6척인데, 그 평방이 바둑판같은 것이 정자이다. 판국 안에 또 둘레로 돌아가며 자로 헤아려보면 한자의 평방이 바둑판의 정간과 같다. 정간이 각각 1평방척이니, 36정간은 곧 36평방척이다.



그림 5. 이방운, 빈풍칠원도, (18세기)중의 일부

여기서 1尺은 고려시대에 사용된 高麗營造尺으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약 30.8 cm<sup>10)</sup>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사륜정의 규모는 가로 6尺≒184.8 cm, 세로 6尺≒184.8 cm로 면적은 약 1평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사륜정은 대저택에 지어진 정자와는 사뭇 다른 것이 규모가 스스로가 초라하다고 하였던 계양 조정의 8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보다 더 협소한 6명이 겨우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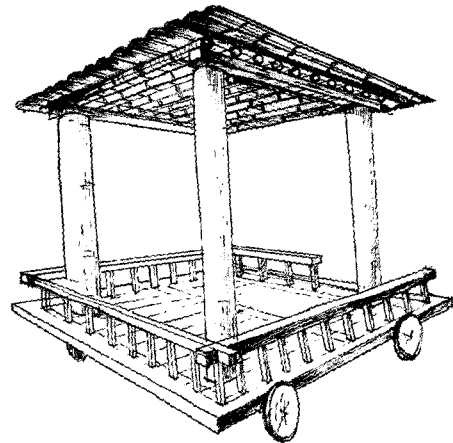


그림 6. 사륜정의 추정이미지 (스케치)

그리고 구조에 있어서도 기둥이 넷이고 들보가 두개에 대나무 서까래를 하고 그 위에 대자리를 얹었다는 점에서 모임지붕이나 합각지붕이 아닌 평지붕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sup>11)</sup>

이와 같은 형상은 18세기 이방운이 그린 빈풍칠원도의 그림 중에 비슷한 형상이 나타난다<그림 5>. 네 개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로는 엮어서 만든 발을 얹힌 형상이다. 본문의 내용을 구상화한 것이<그림 6>이다.

#### 4) 평면계획-모듈식 평면계획

..... 여기에 여섯 사람을 앉게 하는데, 두 사람이 동쪽에 앉되 4평방 정간을 차지하고 앉는다. 새로가로가 모두 2척인데 두 사람의 분을 총계하면 모두가 8평방척이다. 나머지 4평방 정간을 쪼개어 둘로 만들면 각각 세로가 2평방척이다. 2평방척에다가는 거문고 하나를 놓는다.

짧은 것이 흠이라면 남쪽 난간에 걸쳐서 반쯤 세워둔다. 거문고를 탈 적에는 무릎에 놓는 것이 반은 된다. 2평방척에다가는 술동이, 술병, 소반그릇 등을 놓아두는데, 동쪽이 모두 12평방척이다. 두 사람이 서쪽에 앉는데도 또한 이와 같이 하고, 나머지 4평방 정간은 비워두어서 잠깐씩 왕래하는 자는 반드시 이 길로 다니게 된

다. 서쪽도 모두 12평방척이다.

한사람은 북쪽 4평방 정간에 앉고 주인은 남쪽에 앉는데 또한 이와 같다. 중간 4평방 정간에는 바둑판 하나를 놓으니, 남쪽과 북쪽 중간이 모두 12평방척이다. 서쪽의 한사람이 조금 앞으로 나와 동쪽의 한사람과 바둑을 두면, 주인은 술잔을 가지고 한잔씩 부어서 돌려가며 서로 마신다. 안주와 과일접시는 각각 앉은 틈에다 적당하게 놓는다.

이러나, 여섯 사람이란 누구인가 하면, 거문고 타는 사람 1인, 노래하는 사람 1인, 시에 능한 중(僧) 1인, 바둑 두는 사람 2인, 주인까지 여섯이다. 사람을 한정시켜 앉게 한 것은 同志임을 보인 것이다.

10) 선행연구에 따르면, 윤장섭은 30.785~31.027 cm, 신영훈은 30.9~32.9 cm, 손승광은 30.785~31.4 cm라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약 30.8 cm로 약산하였다.

11) 박연근의 “사륜정기 고찰에 의한 정자건축의 연구”에 그려진 사륜정기의 형상은 수레와 같이 끄는 손잡이를 달았고 지붕의 형상은 모임지붕이다. 그러나 ‘어린 종으로 하여금 이것을 밀어 그늘진 곳으로 옮기게 하면...’이라는 구절을 고려해 볼 때 마차와 같이 끄는 손잡이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규보는 사물에 대하여 묘사를 상세히 하는데, 만일 손잡이를 달려고 했다면 그에 대한 언급을 반드시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지붕구조에 대해서도 모임지붕의 형상이 아닌 것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기본 골조가 기둥4개에 들보가 2개뿐이라는 것이다. 모임지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붕가구에 이보다 많은 부재가 필요로 한다. 이 역시 이규보의 아이디어를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이 불충분하게 생략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기둥4개와 들보2개만 으로 된 구조를 상상해야할 것이다.

인체의 작업공간치수를 살펴보면 1인의 인체가 앉아서 작업할 때 530 mm×560 mm, 보행할 때 600 mm×600 mm, 서 있을 때 432 mm×270 mm의 공간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규보는 사륜정 평면의 공간배치에 있어, 사람이 앉는 좌석을 2尺사×2尺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약 616 mm×616 mm의 공간규모로 인간이 앉거나 서서 이동할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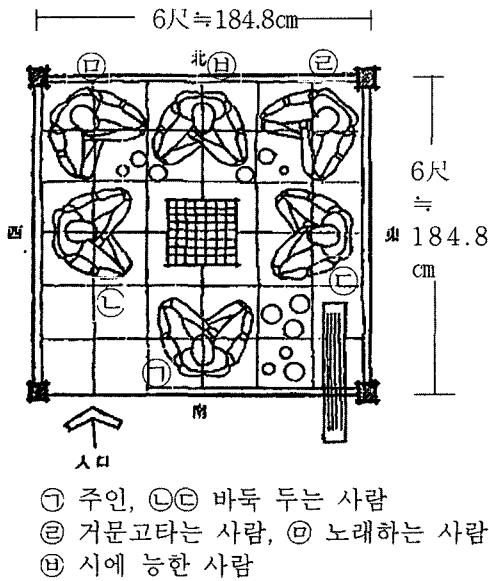


그림 7. 박언곤, 1989, p.203 참조

필요한 공간치수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규보는 공간의 규모와 평면의 공간배치에 있어 인체의 작업공간치수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설계에 임했을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집기류의 차지면적, 통로공간 확보 등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공간계획에 있어서 사용자 수와 공간 사용 행태에 대한 자세한 고려를 염두에 두는 건축계획적 사고 방식을 표현한 대목이며 공간 사용에 있어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합리적인 사상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또, 이러한 사상은 아래에서 더 명확히 나타난다.

5) 시대적 평가 - 뚜렷한 주관과 建築史觀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정자의 평방이 6척이라고 말하였는데, 그 계산한 뜻은 깨닫기 어려울 것이 없으나 무엇을 따지느냐고 이처럼 자세히 계산하여 바둑판 정간으로 비유해서 사람을 천박하게 여기는가?”

하기에 대답하기를,

“하늘이 둥글고 땅이 모난 것은 사람이 모두 아는 바 이지마는, 음양을 말하는 자가 일산과 수례로 비유를 하니, 세로가로 의 步, 尺까지 모두 들어 말한 것은 만물이 모나고 둥근데 들어가는 것이 모두 형기에 응한다는 것을 논하려 함이다. 지금 이 정자에 사람을 계산하여 앉히는 데 있어, 틈이나 중간이나 변을 유무함이 없이 모두 쓰임에 맞도록 하자면 자세한 계산이 아니고서 어떻게 하겠는가? 바둑판정간으로 비유한 것은 처음 설계할 때에 혼자서 표를 만들어서 현혹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요, 남을 가르쳐 주자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어떤 사람이 또 말하기를, “정자를 짓는데 그 아래에 바퀴를 다는 것이 옛날에도 있었는가?”

하기에 이렇게 대답했다.

“취미에 맞도록 할 뿐이지, 어찌 반드시 옛 것이어야

하겠는가? 옛날에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살았으나 안처할 수 없으므로 비로서 기둥있는 집을 세워 풍우를 막았는데, 후세에 와서 점점 제도를 증가하여 판을 대어 높이 쌓은 것을 臺라 하고, 난간을 곁으로 한 것을 棧라 하고, 집 위에 집을 지은 것을 樓라 하고, 활연히 특특하게 지은 것을 亭이라 하였으니, 모두 시기에 임하여 참작하여 취미에 맞는 것을 취할 뿐이다. 그렇다면 정자의 밑에다 바퀴를 달아서 굴러 옮기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 무엇이 불가한가? 비록 취미에 맞는 것을 취한다하더라도 또한 어찌 이유가 없겠는가?

그 시대의 일반적인 정자와는 달리 파격적인 아이디어로 정자를 짓고자 하자 다른 이들이 이규보에게 다소 냉소적인 태도로 질문을 하는데, 이에 대해 이규보는 단호하게 자신의 계획의 합리성을 설명하고, 그 시대의 지식인이 과거의 역사에 집착하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에 비해 이규보는 건축이란 과거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맞는 새로이 창조해나가는 것이라는 진취적인 건축사관을 보인다.

6) 상징성

밑은 바퀴로 하고 위는 정자로 한 것은 바퀴로 굴러가게 하고 정자로 멈추게 한 것이니, 행할 때가 되면 행하고 그칠 때가 되면 그치는 뜻이다. 바퀴를 넷으로 한 것은 사시를 상징한 것이고, 정자를 6척으로 한 것은 六氣를 상징한 것이며, 두 들보와 네 기둥을 한 것은 임금을 보좌하여 정사를 도와 사방에 기둥이 된다는 뜻이다.....

행할때가 되면 행하고 그칠 때가 되면 그친다는 뜻은 앞서 봉향리 초당의 현판에 止止를 붙인 것과 동일한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요, 그의 신조와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바퀴 넷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을 뜻하고, 정자 6척은 六氣, 그리고 들보와 기둥은 임금을 보좌하는 기둥이 된다는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다.

V. 결 론

지금까지 건축학계에 선행연구 된 바 없는 이규보의 「東國李相國集」를 통하여 고려시대의 주택과 정자에 대한 모습 고찰과 그에 대한 고려시대 문인의 건축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먼저 이규보가 주택에 대한 생각을 적은 글을 통해서 그의 건축관을 짐작할 수 있는데, 주택과 건축주의 현재적 관계에서는 은둔자적 자세 및 합리적 사고, 주택과 사람의 일체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주택과 건축주의 미래적 관계에서는 주택을 물리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도장으로 여기는 것을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주택과 자연의 관계에서는 주택을 자연극복을 위해 짓지 않으며 자연에 순응해서 살고자 하는 태도 등을 알 수 있다.

그리고記에는 몇 개의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된 亭子



에 대한 글들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고려시대 정자건축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정자의 유형으로는 경치가 뛰어난 산지(山寺 등)에 위치한 것과 대저택 내에서 병설되어 있는 것이 있다. 둘째, 정자를 만든 의도는 뛰어난 경치를 즐기거나 하는 것과 주연, 바둑, 낮잠 등의 유희를 즐기기 위한 것, 높은 곳에서 도시를 관망하기 위함이다. 셋째, 규모는 웅장한 것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까지 다양하게 있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넷째, 구조는 높지에도 주추를 심어 누각을 지을 정도도 발전되어 있었으며, 지붕은 처마가 들어 올려진 기와와 이엉을 이은 초가가 있다. 다섯째, 화려한 정자는 단청이 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東國李相國集」을 쓴 이규보 자신이 계획한 四輪亭은 현실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시대를 초월하는 움직임은 건축에 대한 독창성과 시대에 맞추어 건축은 변화한다는 신선한 건축사관, 그리고 하중과 공간의 짜임새 특히 모듈식 평면계획에서는 뛰어난 합리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그의 건축관에서도 드러났던 자연친화적 사고에 의한 재료선정과 건축물에 상징성 부여 등 역시 사료정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정자와 구별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인이 만들었던 주택과 정자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그 시대의 문호인 지식인이자 섬세한 관찰력과 묘사적인 필력을 가진 이규보라는 인물이 남긴 「東國李相國集」이라는 책을 통해 우리는 800년이

라는 거슬러 고려인들의 생각을 읽어보고, 그들이 만든 건축물을 되살려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東國李相國集」 중의 건축관련 문헌은 고려시대 건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료가 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이규보 저(1978), 「국역 동국이상국집」III, IV, 민족문화추진회.
2. 민족문화추진회, 「동국이상국집」 국역판,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http://kh2.koreanhistory.or.kr>.
3. 이태호(1997), 「풍속화」 I, II, 대원사.
4. 박종기(1999), “「동국이상국집」에 나타난 고려시대상과 이규보”, 한국사상학회 13권.
5. 金澈雄(1999), “이규보의 도교관”, 한국사상학회, 13권.
6. 박언곤(1989), “사료정기 고찰에 의한 정자건축의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제9권 제2호.
7. 박언곤(1991.4), “고려시대 건축의 부재단위 치수와 구조 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7권2호 통권 34호.
8. 천득염, “누정에 관한 기존의 연구”, 한국역사학회 창립 10주년기념 학술발표대회.
9. 이용범(1993.12), “동문선의 누정기에서 본 고려 중·후기의 누정건축고”, 건축역사연구 제2호 통권 4권.
10. 劉敦楨 著(1995), 鄭沃根 外 共譯「中國古代建築史」, 세진사.
11. 彭一剛 著, 姜泰昊 譯(1999), 「중국전통원림의 분석」, 시공문화사.
12. 「蘇州古典園林藝術」, 中國林業出版社, 2000.

(接受: 2003. 11. 19)